

2012년 낙농사료산업을 되돌아 보며



이재규
우성사료 축우PM

희망과 걱정으로 시작한 우리 낙농산업의 2012년을 마감하는 요즈음, 한해를 뒤돌아 보면 FMD 이후의 원유수급을 걱정하며 초임만삭 산지시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착유두수가 언제나 회복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올 한해의 걱정은 불과 몇개월도 가지 않아 원유쿼터를 초과하고, 분유재고는 전년도 9월에 498톤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 6월에는 9,846톤을 기록, 원유수급에 대한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어렵사리 극복한 FMD 이후 하반기를 접어들며 우리나라를 강타한 3개의 태풍이 푸른 들녘을 휩쓸고 지나갈 때, 미국에서는 역대 100년만에 최대 가뭄이 찾아와 국제곡물 가격이 인상되게 되는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국제 곡물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수입건조 역시 큰폭으로 상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낙농 업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고 지나갈 것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2013년도 역시 올해보다 생산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낙농업계 각 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책임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낙농부국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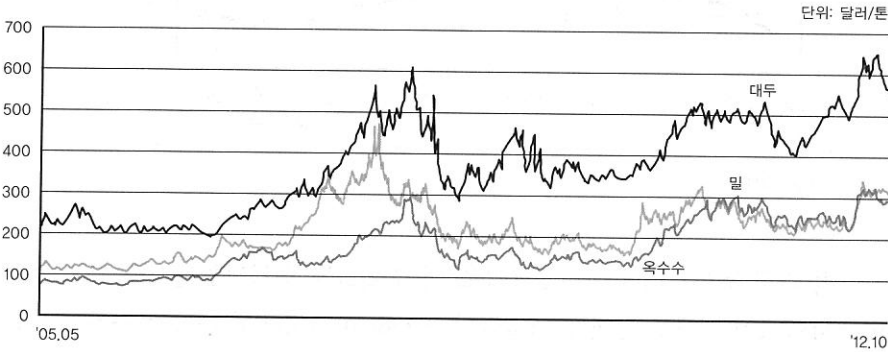


국제 곡물/조사료 가격 급등원인과 전망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온과 태풍으로 온 국민이 근심이더니 지금은 엘니뇨현상으로 여느 때보다 추울 겨울 한파가 온다고 하니 또한 걱정이

다. 이는 국내를 벗어나 미국을 보면 허리케인이 동부 연안을 휩쓰는가 하면 중부지역은 올 봄부터 시작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피해가 엄청나다. 이로 인한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의 식탁, 아니 먹거리시장을 넘어 세계경제의 먹구름을 만들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세계 곡물 가격은 250%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기상이변과 원유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 세계곡물 재고량이 감소하게 되자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이 같은 곡물가격 급등 추세는 글로벌 금융쇼크가 발생한 2008년도까지 이어져 2년 여동안 전 세계가 ‘애그플레이션’ 몸살을 앓았다.

국제 곡물 가격 동향



자료 : 농촌경제 연구원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올 6월 후반부터 가뭄과 폭염 등으로 2012/13년 세계곡물 생산량은 3.5% 감소하여 곡물재고량이 전년대비 10.1%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체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4,700만톤 초과하여, 기말 재고율도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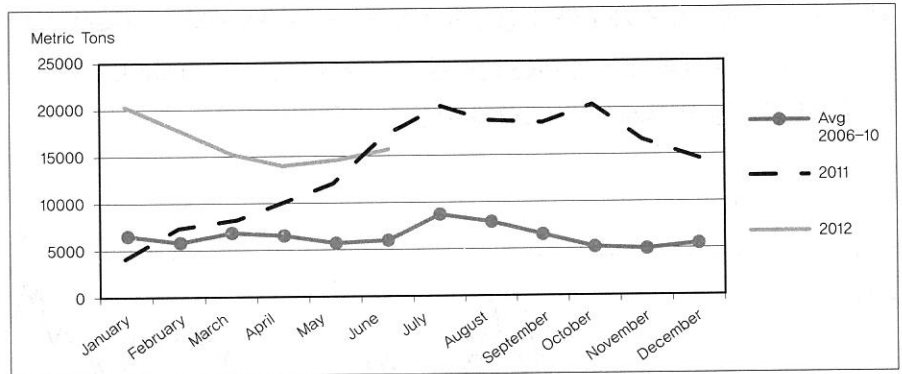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구분	최근 3년 평균	2011/12(추정)	2012/13(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251	2,309	2,228	-3.5
소비량	2,246	2,302	2,275	-1.2
수출량	301	330	283	-14.4
재고량	474	468	421	-10.1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18.5%로 2008/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전망된다. 향후에도 불안정 요인들 즉 주요 곡물 생산국 작황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달러와 가치 하락이 전망되어 투기자금의 이동과 곡물메이저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고곡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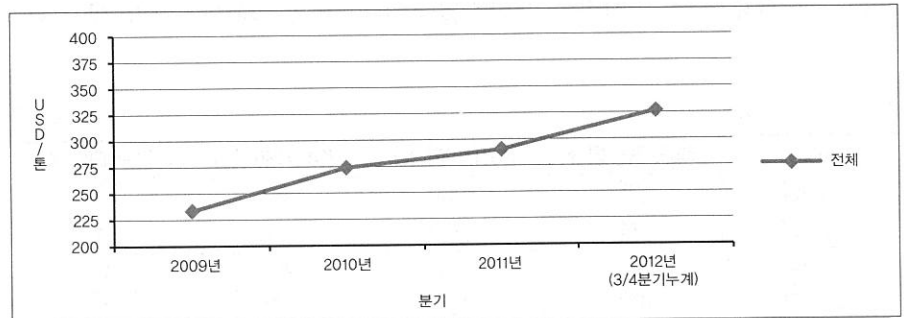
연도별 수입조사료 평균 통관 가격 추세



자료 : HayMktSnap

한편 미국 북서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수출하는 수입건초는 중국과 중동지역에서의 소비증대로 인한 교역물량이 증가하여 현지에서 가격이 증가하고 특히 가뭄과 호우 피해로 인한 생산·수출물량 감소와 조사료 수입국의 물량 확보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전망되며, 일본의 수입조사료 의존도 심화(방사능 유출 피해) 및 중국, 중동의 구매력 증가(국가차원에서 지원)는 아래 표

연도별 수입조사료 평균 통관 가격 추세



자료 : 농림수산물부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수입건초의 평균통관 가격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료 폭등에 이어올 봄부터 시작한 가뭄과 유래 없이 한반도를 3번이나 강타한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은 흉년이 들고, 벼짚마저 폭등해 우리 낙농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며, 조사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볏짚곶포사일리지 가격이 한롤 당 지역적으로 5만원을 상회하여 6만5천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산 청보리를 역시 150원/kg 내외에 거래되어 있어 우리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수분조절제로 이용되는 왕겨값 역시 크게 올라 5톤트럭으로 35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국내외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은 전개되고 있다.

낙농사료시장 전망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9월 젖소사육두수를 보면 417천두로 전분기 대비 7%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13천두가 증가한 13%가 증가하였다. 또한 가임암소 역시 전분기대비 3%, 전년동기 대비 16%가 증가한 298천두로 FMD 이전 수준까지 회복 한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9월 사육가구수는 6.1천호로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가구당 마리수는 2012년 9월 68.7두를 기록 전년대비 2.9두가 증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FMD 이후 낙농 시장은 빠르게 전업화, 규모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구분 (단위: 천리, 천구, %)	'09.12	'10.12	2011			2012			증감	
			6	9	12	3	6	9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릿수	445	430	403	404	404	404	410	417	7	13
가임암소	304	296	282	282	283	284	295	298	3	16
사육 가구수	6.8	6.3	6.1	6.1	6.1	6	6.1	6.1	0	0
가구당 마릿수	65.7	68.3	65.7	65.8	66.5	67.6	67.1	68.7	1.6	2.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

낙농용 사료의 생산량은 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FMD 이후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2010년 11월에 발생한 FMD의 여파로 3

만6천여두의 살처분 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원유 부족 사태 이후 쿼터증량과 연간 총량제 도입으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는 증산정책과 원유가 인상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어, 아래 표에서 보듯이 매년 낙농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임신우중 2산차 이상우가 259천두에 육박하고, 노산차 구성비율이 높아 착유사료는 전년대비 53천여톤이 증가한 610톤이 생산 되었으며, FMD 이후 문제시 된 번식문제로 인한 송아지두수가 적어 송아지류(어린송아지+중송아지+큰송아지) 사료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젖소사육두수의 변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낙농에서 고곡가 및 고조사료비를 생각하면 지역에서 운용하는 자가조 사료 생산과 이를 이용한 TMR 사용 역시 증가 한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추정)	전전년 대비(비율)	전년대비(톤수)	전년대비(비율)
송아지류	349,162	336,775	328,431	94%	-8,344	98%
착유용	601,872	556,599	610,532	101%	53,933	110%
임신우	24,237	29,166	32,643	135%	3,477	112%
건유기	33,839	31,577	32,192	95%	615	102%
고능력우	281,645	284,731	323,716	115%	38,985	114%
젖소용 합계	1,291,589	1,239,754	1,328,599	103%	88,845	10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의 낙농현실은 농가별로 살펴보면 36두 착유우에일일 1톤 남짓을 납유하며, 검정농가는 305일 보정산유량이 9,800kg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검정농가의 상위 50%가 10,559kg/305일이고, 5%가 12,000kg/305일 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젖소는 전 세계 4위 산유량 국가답게 고능력 젖소라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에서 논하였듯이 국제 곡물가와 건초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생산비는 증가하고 농장 수익성은 감소하여, 젖소 영양 급여체계에 소홀하기 쉽다.(특히 육성우와 건유우 관리 부분) 하지만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육성우 관리요, 두번째 단추는 건유우 관리인 점을 인지하여 고능력 우 기초체력 만드는데 우선시 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FMD를 극복한 젖소농가 사례에서 보듯이 현 어려운 시기 역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을 통한 농장 경영이 우선시 되어야 생산비 절감 방안 모색 가능”

또한 효율적인 농장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과학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 한 것이고, 일반 가정집에서 가계비를 낮추기 위해선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듯, 우리농가들 역시 기록을 생활화 해야 한다. 기록을 통한 농장 경영이 우선시 되어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렇듯 우리낙농농가는 가축의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기록, 효율의 극대화등)을 찾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

